



2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위치한 아산서원에서 열린 플라톤의 '국가론' 강독회에서 서원생들이 박성우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가운데)와 함께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기숙사(아산학사)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공부만 생각하는 이들 서원생의 역할도 밀은 우리의 전통 지식인상인 '선비'다. 김경제 기자 kij5873@donga.com

“고전에 답이 있더군요”... 스펙 대신 인문학을 쌓는 대학생들

‘아산서원’ 강독 열기 후끈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입을 빌려 ‘국가 전체가 행복해지면 통치자와 수호자, 생산자 모두 각 계급에 맞는 행복을 누리다’고 했는데요.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파이를 키울 테니 그동안 참으라고 한 것처럼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관 아닌가?”

“플라톤이 이상적으로 묘사한 국가나 개인의 모습은 매우 고립적이네요. 고립된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치적 삶이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2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위치한 아산서원.

서원생 15명이 박성우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가 지도하는 플라톤의 ‘국가론’ 강독회에 열중하고 있었다. 국가론을 5번에 걸쳐 나눠 읽고 의견을 나누는 강독회의 세 번째 시간이다.

어떤 모임이 어떤 책을 읽나

아산서원	신촌서당	이상북 막막한 독서모임
-플라톤 '국가·정치'	-정약전 '자산어보'	-토마스 베른하르트 '몰락하는 자'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나쓰메 소세키 '마음'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볼리타'
-마키아벨리 '군주론'	-아르세니예프 '데르수 우잘라'	-호메로스 '일리아스'
-장 자크 루소 '인간불평등기원론'	-서경석 '프리모 레비를 찾아서'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마셀 푸코 '감시와 처벌'	-공자 '논어'	-로저 젤라즈니 '집행인의 귀향'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필립 K 딕 '인드로이드는 전기망의 꿈을 꾸는가'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루쉰 '하Q정전'	-다윈 '종의 기원'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돈 드릴로 '마오 II'
-공자 '논어'		
-유길준 '서유견문'		
-조선왕조실록'		

천자문 수업, 서예, 사물놀이 등 교양수업과 봉사활동 병행.	계절별 학기, 강의식 수업으로 고전읽기 특강도 진행	세계고전문학 중심으로 기수별로 주제를 정해 진행
-----------------------------------	------------------------------	----------------------------

대학에선 채울 수 없는 호기심 현대판 서원에서 지적갈증 해소

플라톤 '국가론' 등 수차례 토론 "왜?" 고민하며 세상이치 배워

이공계 출신의 서원생도 눈에 띄었다. 이빛나 씨(KAIST 생명화학공학 4학년)는 공학도에게도 고전이 필요하다는 질문은 “단순한 과학적 지식의 축적을 넘어 어떤 지식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알려면 그 답은 결국 역사, 철학 같은 인문학 속에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지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 제 발로 무릎을 찾아온 이들의 학구열은 뜨거웠다. 박성우 교수는 “삶의 목표를 찾으려고 모인 친구들이라 텍스트에 대한 집중도와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했다. 김석근 아산서원 부원장은 “신입생 선발 시에도 스펙이나 학벌이 아닌 자기 얘기를 하는 지원자를 뽑는 게 원칙”이라며 “서원생들이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전액 장학금 개념으로 교재와 수업료, 기숙사 비용 등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두 차례 30명씩 신입생을 뽑는데 현재까지 1~3기 졸업생 90여 명을 배출했다. 현재 6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www.asanacademy.org

‘큰 배움’을 향한 이들의 갈증은 오늘날 취업 사관학교, 기능인 양성소로 전락한 우리 대학 현실에도 책임이 크다. 김보미 씨(경상대 영문학과 4학년)는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과 사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학교 강의를 들을수록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커져 갔다”며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갈증이 고전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 서당의 김용진 대표는 1991년 생긴 대학 생 독서모임 ‘작은대학’ 출신으로 독서모임인 ‘생명’과 ‘죽음’ ‘통섭’을 주도했고, 간행물운 리위원회에서 ‘인문·사회 고전읽기’ 수업을 진행했다. 그는 “대학교 휴학생이나 직장 퇴사자처럼 삶의 전환기에 놓인 사람들이 고전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많이 찾는다. 혼자 고전 읽기가 벅한 사람들도 독서모임을 통해 고전 읽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는 littlemgzine



신촌서당의 '고전읽기 일반강좌' 참가자들이 고전을 읽고 쓴 글을 돌려 읽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촌서당 제공

“혼자 고전읽기 벅하면 독서모임 활용하세요”

신촌서당-헌책방모임 등 활기

고전읽기 독서모임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학 밀집지역인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에는 신촌서당이 있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고전읽기 일반강좌는 강사가 고전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강의식 수업이 아니다. 참가자들은 매주 한 권씩 고전을 읽고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쪽글’을 써 서로 돌려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된다. 공자와 플라톤, 중국의 문호 루쉰과 민중 사상가인 함석헌의 저서 등 다양한 주제의 고전을 읽는다. 일반강좌는 봄(3, 4월) 여름(6, 7월) 가을(9, 10월) 겨울(12월, 1월) 학기 단위로 각각 12편을 모집한다. 학기당 수강료는 18만 원. 일반강좌가 열리지 않는 달에는 강의식 고전특강을 연다.

이 서당의 김용진 대표는 1991년 생긴 대학 생 독서모임 ‘작은대학’ 출신으로 독서모임인 ‘생명’과 ‘죽음’ ‘통섭’을 주도했고, 간행물운 리위원회에서 ‘인문·사회 고전읽기’ 수업을 진행했다. 그는 “대학교 휴학생이나 직장 퇴사자처럼 삶의 전환기에 놓인 사람들이 고전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많이 찾는다. 혼자 고전 읽기가 벅한 사람들도 독서모임을 통해 고전 읽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는 littlemgzine

@naver.com

헌책방에서 열리는 독서모임도 있다. 서울 은평구 진흥로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이상북 막막한 독서모임’을 운영한다. 줄여서 ‘막북’으로 부르는 이 모임은 기수별로 주제를 정해 세계고전문학을 읽는다. 4월 초 열리는 11기의 주제는 하느님에서 파생돼 ‘연아님’처럼 칭송하는 대상에게 쓰는 ‘노님’(아이들이나 스타를 신격화할 때 불리는 인터넷 신조어)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볼리타’ 등을 읽는다. 윤성근 대표는 “대학생들이 눈술 공부를 통해 고전을 접했지만 대부분 원작을 읽지 않거나 편집된 부분만 골라 읽고 있다”며 “원전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싶은 사람에게 독서모임이 도움을 준다”고 했다. 모집인원 10명, 참가비 5만 원. leesiro@hanmail.net

영화와 연극, 대중음악, 사진, 미술 전공생들을 중심으로 모인 ‘철학하는 예술가 수요세미나’도 있다. ‘철수세미’로 유명한 이 모임은 ‘서양미술사’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민중의 세계사’ 등을 읽으며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지망생이 모여 서로 교류하며 예술적 지평을 넓힌다. 10주 단위로 운영하며 참가비는 3만 원이다. cafe.naver.com/artphile

박훈상 기자 tiger@donga.com

“슬퍼하지 말라... 인생이란 원래 슬픈 것을”

이준규시인, 시집 2권 잇달아 출간

수화기 너머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다. “시인은 핸드폰이 없어요. 집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e메일은 자주 확인하시던데, 그쪽으로 연락해 보세요.”

이준규 시인(44)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e메일을 보낸 지 약 6시간 만에 답장이 돌아왔다. “네, 인터뷰 가능합니다.” 그는 최근 시집 ‘네모’(문학과지성사)와 ‘반복’(문학동네)을 잇달아 펴낸 참이었다. ‘반복’은 2011년 시집 ‘삼척’(문예중앙)을 낸 이후에 쓴 산문시로 채웠고, ‘네모’는 2009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쓴 길지 않은 시만 따로 묶었다. 두 시집에 적힌 ‘시인의 말’은 간결하다. ‘슬픔만을 남기고 싶었다’(네모), ‘반복한다(반복)



이준규 시인은 시집 '네모'의 속지에 '지혜에게'라고 적어 넣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인 아내의 이름이다. 김경제 기자 kij5873@donga.com

그의 시는 한 줄 한 줄 되새기기보다는 전체를 느껴야 한다.

‘공터가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공터의 끝에 교회가 있었다. 교회의 뒤로 테니스장이 있었다. 테니스장 옆에는 밭이 있었다. 비닐하우스

도 있었다. 그곳은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이 되었다. 조금 떨어져 도로가 있고 도로 위에는 육교가 있었다. 공터의 다른 끝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공터의 가운데에 트램펄린이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네모’에 실린 ‘트램펄린’ 전문)

문장 사이의 빈 공간에 솟았다가 떨어지고 다시 상승하고 내려앉는 시인의 시선이 숨어 있다. 어느 저녁, 해가 지는 공터의 적막한 쓸쓸함이 진동하듯 찾아드는 것이다.

“인생을 들여다볼수록 슬픔만 남는 것 같다. 부질없다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삶을 이해하는 거다. 나의 시는 구조를 분석하기보다 시의 파편들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받아들이면 된다. 사물과 철학적으로 마주하는 시인의 자세는 없다고 보는 편이 맞다.”

2000년 ‘문학과 사회’로 등단한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시인을 ‘이상한 성자(聖者)’라고 말한다.

“시인은 특별한 직업들 가운데 가장 초라한 일을 한다. 시인은 고통스럽고 그 처지에 처절한 면이 있다. 구도자나 사상가와 비슷하면서도 시인이 다른 것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어떻게든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점이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독일어판 ‘햄릿 사전’에 한국편 실려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전 세계적 수용 양상을 정리한 독일어 사전에 한국편이 수록됐다. 독일어판 연극 사전에 한국 관련 내용이 수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독일 메츨러 출판사가 출간한 ‘햄릿 핸드북: 소재, 수용, 해석(Hamlet Handbuch)’으로 책임편집은 페터 막스 독일 쾰른대 교수(연극영화학)가, 한국편 집필은 베를린자유대 연극학 박사 출신의 김정숙 성균관대 겸임교수(연극학)가 맡았다. 메츨러 출판사는 1682년 설립된 독일의 인문학 사전전문 전문 출판사다.

햄릿의 지역별 국가별 수용사와 공연사가 책 전체의 4분의 3(437쪽)을 차지하는 이 사전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이스라엘, 캐나다, 동중국 아프리카 등 19개 권

역에서의 햄릿의 수용 양상을 정리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4쪽)과 중국(6쪽), 일본(5쪽), 인도편(4쪽)이 수록됐다.

한국편에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별로 햄릿이 국내에 어떻게 수용됐고 공연됐는지를 정리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햄릿 공연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부분에서는 동아일보의 문화면 기사가 참고문헌으로 인용됐다. 1921년 ‘개벽’지에 실린 최초의 번역본인 현철의 ‘하틀레트’ 이후 초기 수용사는 한국편 서문에 들어갔다.

김 교수는 “이 사전의 출간으로 독일어권에 햄릿에 대한 지식·인식 체계 안에 한국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

단신

■ 한국문화기행회(회장 김영택)는 제4회 정기전을 연다. 동양의 떡과 서양의 펜이 만나 꽃핀 펜화는 디지털 그림에서 느낄 수 없는 ‘손맛’이 들어 있다. 25명의 작가가 자연 풍경, 절, 성당을 비롯해 한국적 소재를 0.1mm의 펜 선으로 담아냈다. 26일~4월 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화봉갤러리. 02-737-9957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문화원수원은 연중으로 진행되는 3박 4일의 참선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충남 공주시 마곡사로 연수원에서 템플 스테이와 함께 이뤄지며 고우, 원백, 해국 스님이 증명 법사로 참여한다. 교고생 이상 수강할 수 있고, 입문 12기는 4월 10일 시작된다. 041-841-5050, www.budcc.com